

2026년 8월 26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미국 자산, 이탈리아 차별화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재정건전성 우려를 배경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경계의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6월 수치이기는 하나 지난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국제자본흐름(TIC)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인 자금이 미국 자산 전반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산별로 보면 오히려 자금흐름의 차별화가 뚜렷하다. 6월 외국인은 미국 주식을 1,814억 달러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장·단기 채권 전체에서는 34억 달러가 순유출됐으며, 단기국채에서는 29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장기국채 순매수도 전월 566억 달러에서 68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장기국채의 경우 민간부문의 순매수는 이어졌지만 공공부문은 순매도로 전환했다. 반면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6월 외국인은 미국 회사채를 356억 달러 순매수하며 19개월 연속 순투자를 기록했다. 월평균 순매수 규모도 2025년 327억 달러에서 2026년 419억 달러로 확대됐다.

결국 최근 외국인 자금흐름은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회의론보다는 미국 국채와 기업자산에 대한 평가가 차별화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 공급 부담 등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경계는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기업의 성장성과 신용에 대한 투자수요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흐름은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 하이퍼스케일러의 AI 관련 CAPEX 확대와 함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회사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이를 받아줄 투자수요가 충분한지가 향후 AI 투자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금융시장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서 뚜렷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I 관련 기업의 회사채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미국 회사채 순매수가 1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고, 올해 월평균 순매수 규모도 지난해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증가하는 회사채 공급을 흡수할 글로벌 투자수요가 아직 견조하며, AI CAPEX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여력도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 전체를 줄이기보다 국채는 경계하면서 주식과 회사채 등 기업자산에 대한 투자는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회사채 수요가 유지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자금조달 여건이 AI 투자를 제약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회사채 발행금리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국채시장의 부담이 회사채 시장으로 확산되는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